

제11회 대전 ‘효’ 문화뿌리축제

제11회 대전효문화뿌리축제가 전국 184개 성씨가 참여한 가운데 대전 중구 뿌리공원 일대에서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盛大하게 거행되었다.

안동권문에서는 대전종친회 권용기 회장을 비롯하여 권박원 참의공중종이사장, 권동원 참의공중종 상무이사, 권신상 대전종친회 수석부회장(우송정보대학 교수), 권선웅 탄옹공파중종 도산서원 총무이사 등 60여명의 회원들이 적극 참여하였다. 대중회에서는 권건중 사무총장과 권행완 편집국장이 참석하였다.

대전종친회에서는 지금까지 11회째 안동권문을 대표하여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대회 중 각 성씨별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문중 퍼레이드라고 할 수 있다. 올해 문중 퍼레이드는 행사 이틀째인 28일 10시부터 아나운서 유종화, KBS 대전방송국 최혜정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대전종친회 회원들은 안동권문을 대표하여 시조 태사공 묘소 사진을 앞세우고 권율장군(장군역 권용락)을 필두로 60여명의 족친들이 도포를 입고 3.1운동 100

주년에 걸맞게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지사 청암 권병덕, 권용일 의병장, 우당 권동진, 막나 권오섭, 권준(權駿) 의열단, 권준(權俊) 의병장, 권인규 의병장, 권영만 지사, 권기욱 대령 등의 초상화 피켓을 들고 수많은 관객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받으며 보무도 당당히 입장했다. 그 결과 문중 입장 퍼레이드 우수상을 수상하고 부상으로 상금 70만원을 받았다.

대회 첫날 27일에 실시되었던 문중 음식대회에서는 권용재 족친의 부인 박숙희씨와 권명호 족친의 부인 강미형씨가 출전하여 지금까지 숨겨두었던 음식솜씨를 한껏 발휘하여 우수상과 함께 부상으로 50만원을 수상했다. 안동권문의 머느리들이 일군 쾌거가 아닐 수 없다.

또한 권원태 족친은 아슬아슬 줄타기에 출연하여 한발로 건너가기 등 줄타기의 아슬아슬한 묘기와 꺾죽한 입담 등으로 관객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기도 했다.

해촌 김홍영 서예가(대한민국 미술대전 초대작가)는 안동권문 부스를 방문하여 가훈을 부탁하는 방문자들에게 일일이 요청하는 가훈을 붓글씨로 정성스럽게 써주었다.

한국적보박물관에서는 임시정부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청암 권병덕과 실암 권동진을 포함한 민족대표 33인에 대해 전시하고 있었다.

대전종친회 권의재(추밀공파, 33세) 족친은 11년째 효문화뿌리축제에 봉사하고 있다. 권의재 족친은 집이 가까워서 제일 먼저 오고 맨 나중에 집에 간다고 귀띔했다.

권용기 대전종친회장을 비롯하여 많은 대전종친회 회원들 덕분에 대전효문화뿌리축제에 안동권문의 위상이 더욱 제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권율장군 장군복 등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서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고 권용기 회장은 말했다.

3일간 진행되는 효문화뿌리축제는 축제 기간 중에 전국에서 약 25만여명이 다녀가는 전국축제로 발돋움하고 있는 중이다.

행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한 대전종친회 회원여러분에게 격려와 감사의 박수갈채를 보낸다.

편집국장 권행완



권율장군(장군역 권용락 족친) 나가신대 문중 퍼레이드에 출전하는 대전종친회원들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받으며 안동권문의 후예들이 보무도 당당히 입장하고 있다. 우수상 수상!!!



안동권문의 머느리 문중 음식경연대회 우수상 수상, 권명호 족친의 부인 강미형씨(왼쪽)와 권용기 대전종친회장(가운데), 권용재 족친의 부인 박숙희씨



11년째 효문화뿌리축제에 봉사하고 있는 권의재 족친

아나운서 유종화(왼쪽), KBS 대전방송국 최혜정 아나운서



조선사회개혁계몽운동의 선구자, 실암 권동진

채수명(한국인문사회예술헌연구원장)

안동권문은 고려(高麗) 건국에 기여한 공로로 태조(太祖) 왕건으로부터 사성(賜姓)받아 올해로 권기(權紀) 1100년이 되는 역사에 빛나는 한국대표 명문가(名文家, 100만 족친)이다.

이에, 수많은 인재배출로 국정운영과 각계지도자로서 핵심참모로서 가문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데 집곡(極骨)의 한국근현대사 산증인 중 실암(實菴) 권동진(權東鎭)은 사회개혁계몽운동가로서 기여도가 큼에도 학계연구부족과 가족 및 종친회 그리고 연구지(출생지 괴산, 운명지 장호원) 인재 발굴 등에 소홀했기에 빛을 보지 못했다.

그는 전통무과 가문에 신식군대(교련병대 사관학교) 1기 수석 졸업생으로 초고속승진(종9(1882)~3품(1893))을 했으나 그의 형 권형진과 함께 1895년 8월 대원군의 명성황후 폐위 획책에 가담하면서 이 일로 인해 결국 일본 망명길에 올라야 했다. 이 무렵 그는 오사카로 건너갔다가 망명객 의암(義菴) 손병희(동학 3대 교주)를 만나면서 인생의 행로가 바뀌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그는 타고난 무인이었지만 손병희와 만남 이후 천도교에 입교하였다.

의암(義菴)은 실암(實菴)을 통해, 실

암은 의암을 통해 조국의 각종 사회개혁 계몽운동과 독립운동 및 해방 후 건국운동에 매진했다. 특히 천도교의 3.1운동은 실암 권동진과 오세창이 교단 내 계획을 추진했고, 대외관계는 최린이 주로 담당하였다. 주목할 점은 실암이 추구한 만세운동은 천도교 차원에 머물지 않고 기독교, 불교 등 타종교 세력과도 연합하여 나라의 독립을 도모했다는 사실이다. 3.1운동 독립선언식 낭독 직후 일제 경찰에 붙잡혀 1920년 경성복심법원에서 3년형을 선고 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 1921년 12월 22일 출옥하였다.

안동 권씨 가문의(추밀공파) 무인정신으로 청렴결백하고 사심 없는 헌신적 사회개혁계몽운동과 애국심은 오늘날 지도자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준다. 단재 신채호가“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설파했고, E.H. 카카가“역사란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와의 대화이다”라고 했듯이 실암은 한국 역사에서 어제의 교훈이자 오늘의 밑보이고 미래라고 할 수 있다.

실암을 30여년 동안 스승으로 모셨던 이종린은 1935년 삼천리 잡지에 실암의 인품과 면모를 다음과 같이 기고한 바

있다.

“세상에 그의 벗, 그의 동지가 많겠지 만 씨를 이는 점에 있어서 나를 따를 이 없다고 자신하는 바이니, 그의 성미는 오직 ‘일’에 있을 뿐이요, 명에나 재물에 마음이 없으며 그의 특성은 오직 아담에 있고, ‘함’에 있을 뿐이요. ‘뉘그러’와 ‘뉘함’이 없음을 나는 잘 아나. 오세창씨와 권동진씨의 두 분의 성격을 생각해 볼 때 좋은 대조를 발견할 수 있으니, 오세창씨는 ‘꼭 해서 성공할 일’에만 착수하고, 권씨는 ‘성패이론(成敗利鈍)’은 다음으로 미루고, 그 일이 해야 할 일이면 앞뒤 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으로 매진할 뿐이다(…)그런 까닭에 일을 잘 벌여 놓고, 간혹 수습을 잘 못하는 결점이 권씨에게는 있다. 그리고 28년 동안 권동진씨에 사심(私心)이 없는 일사(一事)를 나는 경험으로 알고 존경하기를 불이(不巳)하였다(…)일상 술을 가까이 하지 않고, 담배도 안 피운다. 더구나 여색이나 금전이라. 철심 평생, 깨끗한 뜻과 청빈(淸貧)으로 시종하였다”라고.

실암은 이처럼 실행과 실천, 실질을 숭상한 독립운동가였다. 또한 명리만을 쫓는 명랑가가 아니라 민초와 함께 하



는 지도자였다. 뿐만 아니라 근면, 성실, 검약의 정신으로 성패이론(成敗利鈍)을 따지지 않고 그 일이 해야 할 일이면 앞뒤 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으로 매진하며 그 어떠한 고통에서도 좌절하지 않았다. 그는 독립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임시정부환영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하고 1945년 12월 신탁통치의 소식이 전해지자 신탁반대국민총동원위원회를 결성하고 독립국가 수립에 온 힘을 기울였다. 또한 비상국민회의와 민주주의민족전선으로 분열하여 대립하자 신한민족당을 결성하여 ‘자율적 통일정권 수립을 목표로 전민족의 총의와 총력을 집중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독립 달성을 위해 마지막 불꽃을 태우던 그는 해방정국의 혼란이 가중되던 1947년 3월 9일 87세의 나이로 작고하고

말았다. 그의 장례는 천도교당에서 사회단체장으로 치러졌다. 현재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잠들어 있다.

끝으로, 학계에서는 실암(實菴) 권동진(權東鎭)에 대한 종합적이고 입체적이며 시스템적인 평전선정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천년의 역사를(시조 권행) 간직한 안동 권(權)씨의 전통가문의 선비정신에 대해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강직, 청렴, 충심, 근면 겸소하며 사심 없는 실암의 무인정신(武人精神)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세대, 이념(사회주의), 종교를 초월한 포용력 있는 민중의 지도자답게 탁월한 업적을 남긴 한국근현대사의 산증인이자 보배로서 교훈적 비전 등을 통해 우리는 그 역사적 가치성을 부양시켜야 한다.

넷째, 선각적 시대정신과 사회개혁계몽운동가로서의 실암(實菴)정신을 이어받아 국가와 각계각층 지도자들은 행동하는 양심적 지성인다운 시대정신으로 헌신적이고 애국적 마인드 실천을 강화하기 위한 장단기 마스터플랜을 수립도 필요하다. 더 나아가 선진시민 정신문화운동은 물론 남북통일과 동북아 평화와 공존공영에 기여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실암 별세 시 민족해방운동 공로로 전국민사회단체연합장(장의준비위원장 김구)으로 장례를 치를 정도로 극진한 예우를 했으나 이후 역사에서 잊은 인물이 되어버렸다. 린 실암에 대한 학술연구와 기념사업 등을 통해 실암 정신의 계승발전과 문화콘텐츠화 노력은 대중회에서 관심 기울일 가치성이 있다고 본다.